

방치되는 ‘에이즈’

이창우 | 한양의대 피부과 교수

피부과 의사로서 지난 몇 년간 여러 명의 20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를 진료실에서 만난 적이 있다. 이들 중 매독치료를 위하여 피부과에 왔던 두 명의 청년이 생각난다. 모두 의심되는 면이 있어서 에이즈 관련 혈청검사를 시행했고 바이러스 항체양성의 소견을 확인한 경우들이었다.

첫 번째의 학생은 지방에 부모를 두고 서울에서 유학하는 대학생으로서, 최근 연간 약 40회의 이성 관계를 하여 왔고 그 상대로서는 여자 친구나 매춘부들이었다. 두 번째 학생은 미국유학생으로 여러 해 해외생활을 하던 중 군복무를 위하여 수개월 전에 귀국하여 입대를 기다리는 시기에 있었다. 그 역시 매독의 피부발진과 함께 몸살과 같은 전신 증상도 가진 경우로서 혈청검사서 에이즈 바이러스 항체양성의 소견을 확인한 환자였다.

우리 사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는 드물지 않을 뿐 아니라, 지상보도로는 감염자가 5000명 정도라고 하나 이는 국가기관에 등록된 환자의 수며, 실제로는 이보다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수적으로 2/3 정도의 감염자는 서울지역의 거주자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4000만 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UN 보고서/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수가 가장 많다. 그러나 머지않아 인도와 중국을 포함

한 동남아 지역이 3000만 명에 가까운 감염자를 가져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가장 창궐할 지역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감염자의 수가 많은 국가 중 우간다에서의 예방/퇴치운동을 전해 듣고 놀라운 면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러 해전 100만 명을 넘긴 감염자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던 중, 우간다 대통령의 영부인 무세비니 여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하여 여러 해 전부터 신앙심을 바탕으로 계몽운동을 벌여 왔다. 캠페인 팀들을 조직했고, 이들은 젊은이들에게 다가서서 계도/교육하며 전국을 수없이 순회해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임신부 중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약 30%이던 기록이 10년 정도 지난 뒤에는 10% 이하로 낮아졌고, 전국의 신환 발생률도 격감하게 됐다. 한편 이를 지켜본 이웃나라 잠비아에서도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종교인들이 앞장 서서 감염예방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비단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의 급증 추세뿐 아니라, 노출되어 보이며 경험하고 있는 사회전반의 부정적 괴리현상들이 옥토에 난무하는 잡초처럼 보이지는 않는지 악마(붉은)의 티-셔츠를 좋아하며 물밑으로 흐르는 에이즈를 외면하듯 하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누구

의 아들딸이며, 방향감을 잃고 어지러워하는 이 세대의 모습은 누가 만든 사회인가. 저희 기성세대 지식인들로서 이러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많은 책임을 느끼며, 허술하게 관리 되어온 사회윤리와 도덕관념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제는 모든 계층에서 회심의 통곡과 함께 감동적 성찰 없이는 이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없으며 이 민족의 앞날이 평안하기만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약력

- 1972년 고려의대 졸업
- 1977년 서울대병원 피부과 전문의
- 1979/1983 미국 위스콘신 의대 임상면역학 연구원
- 1981~ 한양의대 피부과 교수
- 2004~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생활의 지혜

▶ 달걀은 씻지 말고 보관하기

달걀을 물에 씻으면 껍질의 자연보호막이 없어짐으로 그냥 보관해야 한다.

▶ 눈이 피로할 때

얼굴 관자놀이 부분의 머리카락을 옆으로 2분 가량 당겨 주면 눈 주변 혈액의 흐름이 좋아져 눈의 피로가 사라진다.

▶ 냉장고는 여유 공간을

냉장호에 음식물을 가득 채우면 냉기의 흐름이 나빠져 냉장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물 사이에 공간을 여유있게 두는 것이 좋다.

▶ 상해서 못 먹는 우유 처리

상해서 먹지 못하게 된 우유는 부드러운 천에 묻혀 마루바닥이나 가구 등을 닦아 윤을 내는데 쓰면 된다.